

지역사회 바꾸는 '신기업가정신' 우시산 "고래 찾는 울산 만들 것"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업)

ERT 참여 기업 76곳 → 803곳
최태원 상의 회장, 우시산 주무
3년간 폐플라스틱 102t 수거
노인 고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도로 2022년 출범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의 아이디어를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ERT를 통해 활성화하고 있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ERT 참여 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 당시에는 76곳에 불과했던 참여기업은 현재 803개로 늘어났다.

ERT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 선언문'에서 ▲경제적 가치 제고 ▲윤리적 가치 제고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 등과 함께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방향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꼽은 건 앞선 세대가 고속 압축성장을 거치며 간과했던 문제를 후대가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ERT와 최태원 회장이 주목한 기업은 울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업 '우시산'이다.

2015년 가을 울산 남구청과 SK울산



변의현 우시산 대표가 우시산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허정윤 기자

CLX가 함께 진행한 '사회적 경제 창업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항만공사에서 만난 변의현 우시산 대표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비닐을 재활용해 울산에 다시 고래가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우시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폐플라스틱 102톤(t)을 거둬들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지난해만 500ml 생수병 14만개 상당인 폐플라스틱 40.3톤을 수거했다. 이는 이산화탄소(CO2) 239.7t을 상쇄하는 양으로 30년생 편백나무를 4만625그루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알려졌다.

우시산의 활동은 업사이클 제품 제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우시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노인과 발달장애인이다.

변 대표는 "단순히 폐트병 재활용 제품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들을 파고들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마케팅과 아이디어 제공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3월 ERT 출범 1주년을 맞아 우시산을 직접 방문해 "신기업가정신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물론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가치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봉사활동, 기부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람보르기니, 韓 팝업라운지 첫 오픈 "디아블로SV, 경험해보세요"

창립 60주년 맞아 국내 팬 소통
디지털화 포부... "韓 시장 확대"

"경제 사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록을 기대하고 있다"

람보르기니아시아태평양지역프랜차이즈 스카르다오니 총괄은 국내 판매량 전망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람보르기니가 국내 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역사적인 모델과 함께 국내 작가와 함께 만든 그래픽티 작품도 소개하며 지난 여정을 함께 돌아켜본다.

람보르기니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60주년 기념 팝업 라운지를 운영한다. 스카르다오니 총괄을 비롯한 람보르기니 주요 관계자들이 오픈을 축하했다.

스카르다오니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오픈한 이번 팝업 라운지는 지난 60년 간 끊임없이 진화해 온 람보르기니의 현재 모델과 상징적인 모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한국의 기존 고객들은 물론, 람보르기니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이곳에서 람보르기니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픽티아티스트 범민 작가와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작품도 전시한다. 람보르기니 60주년과 함께 직선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 등을 감각적으로 묘사해 창립 6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

범민 작가는 "혁신의 아이콘인 람보르기니의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며 "이번 작품은 람보르기니의 진화와 혁신을 상징하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 나아가 람보르기니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르다오니는 인터뷰를 통해 람보르기니가 차주들에게 유일무이한 가치를



(왼쪽부터) 람보르기니 서울 김종복 대표, 그래픽티아티스트 범민, 아태지역 CEO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SV

전달하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봤다. 다른 나라 대도시와 비교해 관리가 잘되는 도로도 장점, 교통 체증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꿈의 차'에 탑승해 도시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봤다. 람보르기니 관계자는 람보르기니가 광고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들에 브랜드를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내 딜러사를 추가한 이유도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람보르기니를 직접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딜러사들이 전문적인 역량으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람보르기니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은 물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디지털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8년 준비 중인 전동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중, 소비자들이 큰 스크린과 커넥티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최근 레부엘토에도 3개 스크린과 풀커넥티비티 기능으로 요구에 대응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iuk@

SK하이닉스 DDR5 D램, 인텔 서버용 CPU 최고성능 뒷받침

양사 DDR5 생태계 백서 공동 발행
데이터센터 성능 획기적 개선 전망

SK하이닉스 서버용 DDR5 D램이 인텔 최신 서버용 CPU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DDR5 생태계 백서를 공동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사파이어 래피즈)에 SK하이닉스 DDR5 D램을 탑재해 성능을 검증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텔 사파이어래피즈는 이전 세대보다 성능 효율을 2.9배 높였고, SK하이닉스 DDR5 D램도 D



DDR5 생태계 백서. /SK하이닉스

DR4 대비 전력을 14.4% 적게 썼다. 전력 대비 성능으로는 정수 계산에서 1.22배, 부동소수점 계산에서 1.11배나 높았다.

양사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파이어래피즈와 SK하이닉스 DDR5를 데

이터센터로 구축하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운영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예상했다.

SK하이닉스 류성수 부사장은 "백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인텔 CPU와 당사 DDR5가 적용된 서버를 사용하면,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구현돼 고객은 데이터센터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같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에 필요한 고용량 D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다임러트럭 코리아, 'e악트로스 600' 공개

20주년 간담회... 트럭커 2.0 비전 공유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동화 모델인 'e악트로스 600'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깨끗한 트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1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당신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진출 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트럭 운송을 이끌 '트럭커 2.0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는 '다임러 트럭의 20년 성과와 향후 국내 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

다. 먼저 안토니오 대표는 100만km 이상의 누적 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언급하며 국내 시장에 처음 받을 디딘 순간부터의 이력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대표는 "다임러 트럭이 정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차량 평가와 분석을 거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나 울산의 서비스 센터를 열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엑사원·SDV 등 6개 분야 33개 발표

LG전자 SDC 2023

'융합의 가능성' 주제... 1000명 참여

LG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미래를 고민했다.

LG전자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 SW 협의회 주관으로, 의장사인 LG전자와 계열사들이 함께 만들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 엔지니어 1000여명도 동참했다.

주제는 '융합의 가능성(The Possibilities of Convergence)'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SW기술·개발문화 ▲클라우드 ▲이머징테크 등 6개 분

야 33개 발표로 이어진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자바 창시자인 제임스 고슬링 AWS 전문엔지니어가 각각 엑사원 2.0 활용방안과 커리어 개발 경험 등을 소개하며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서 개발자들이 최신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사업별로 업가전 2.0과 가전 소프트웨어 변화 방향,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기술 로드맵 등도 발표했다.

LG전자 CTO부문 SW센터장 박인성 전무(사진)는 "미래준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며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소통 기회를 늘려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에 속도를 내고 고객들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와 도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